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環境法해설서 만들겠다

■ 편집부

● 지난 6월에도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법학회의 창립취지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학회는 환경법의 연구와 연구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77년도에 창립됐습니다. 회원들은 환경법 외에도 행정법, 민법, 형사법등 관련법을 연구한 교수, 판사, 변호사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으로는 1년에 5회 정도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1년에 1번씩 학회지인 '환경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선 11월 23일에 '독일의 환경책임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와함께, 최근 잇따른 환경법의 세분화에 따른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개별법에 충실한 법해설서를 만들어 홍보할 계획입니다. 양이 방대하니까 각 분야별로 나눠 집필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 그동안 환경법 제·개정시 환경법학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환경법'연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 제 입장으로는 학회의 활동이 정부의 법입안시 충분한 뒷받침을 못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수법의 경우도 대동소이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는 '환경법'만으로 개설된 강좌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문적인 발전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각 대학에 '지방자치'과가 생기려는 추세처럼 앞으로는 몇

개 대학이라도 학부수준에 '환경법학'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 지난 '63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몇차례의 변화를 거쳐 올해 2월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6개 법규가 제정됐고, 뒤이어 3개법규가 정비되는 등 우리의 환경법도 세분화되는 발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법중에는 현실과 유리된 내용들이 보입니다. 한 예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경제적부담을 주는 배출부과금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이 시행된지 얼마안있어 3월 폐놀사건이 터지자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듯 3배가량이나 갑자기 올렸습니다.

부과금을 인상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째서 법의 제정시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개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의 제·개정시 그 법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각 분야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 정책엔 일관성과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들어와서 환경문제가 갑자기 대두되니까, 정부역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그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응요법적으로 대처해왔던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조사도 없었고 환경문제가 워낙 예상을 넘어 급격히 변하니까 그에 따라가질 못했고, 따라



서 기존의 환경보전법 하나만으론 역부족이었죠.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법들로 정비된 것입니다.

● 최근 알려진바에 따르면 환경기사 자격시험 과목중에서 환경관련법을 제외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학과 교수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삭제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답니다.

응시생이나 공단측의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관련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현장에서 환경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 법이 자주 바뀐다거나 어렵다고해서 환경법 자체를 제외시켜서는 안됩니다.

전망이 안된다면 얼마만큼 축소해서라도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저희 학회에서라도 관계당국과 면담하겠습니다.

### \* 한국환경법학회 \*

● 창립년도 : 1977. 12. 7

● 학회임원명단

회 장 박윤훈(경희대 법과대학교수)

부회장 오성락(변호사)

김철용(건국대 법과대학교수)

감 사 신현덕(경희대 )

간 사 이상돈(중앙대 )

● 회원수 : 1백 50명 ('91년 10월 현재)

● 정기활동내역

학회지 발행(년1회) · 세미나 개최(년 3~5회)

● 연락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교수연구실

전화 / (02)810-2330